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2.50원 상승한 1,136.30원에 마감

15일 환율은 전일대비 2.50원 상승한 1,136.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70원 오른 1,136.50원에 개장했다. 개장 후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된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다. 장 막판 네고물량과 달러 매도 물량이 상승폭을 제한하여 환율은 전일 대비 2.50원 상승한 1,136.3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39.78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36.50	1138.30	1132.80	1136.30	1135.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39.67	1042.48	1038.88	1040.28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6.02	1359.59	1353.22	1355.34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9	-0.93	-2.01	-3.88
결제환율(수입)	0.1	0.28	-0.04	-0.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미국 기술주 중심의 위험선호심리 회복에... 1,13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36.30원) 대비 3.90원 내린 1,132.2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달러 강세 분위기에다 미국 기술주 중심의 위험선호심리 회복 영향에 하락이 예상된다.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고 기술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아시아와 유럽장에 위험선호심리를 자극하였다. 어제 순매도를 기록한 국내증시 외국인 투자심리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공업 수주 소식이 달러 공급 부담을 키워 환율 하락이 예상된다. 연준의 조치에 따라 미국 금리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FOMC 결과에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실수요 매수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는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29.67 ~ 1136.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132.6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90원 ↓
	■ 美 다우지수 : 32953.46, +174.82p(+0.5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7.0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75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